



박소현의 섹.시.토크

“여보, 우리 집이 심장병이 내력인지 알지? 할아버지도 아버지도 심장경색으로 돌아가셨잖아. 그것도 60도 되기 전에.”

“갑자기 그런 소리 왜 해? 그렇지 않아도 불경기라 심란해 죽겠는데.”

“요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그런가. 건강도 예전 같지 않고, 이런저런 생각이 많이 드네.”

“몸 아프면 병원에 가지, 가장이라는 사람이 그런 생각 하고 있으면 돼? 그것도 마흔밖에 안 되었으면서.”

“사람이 죽고 사는 걸 자기 맘대로 할 수 있나? 다 운명이지.” “살 의지가 있으면 운명도 거역할 수 있는 거야. 왜 이렇게 낙관했어?”

K의 목소리는 억박지르듯 했지만 사실 놀라면서도 두려운 마음이었다. 이 남자가 말 못할 고민이라도 있는 걸까? 오만가지 생각이 찾아들었다. 혹시 나 몰래 주식을 해 왔던 건 아닐까? 아파트 담보대출을 받아 투자했다가 그게 휴지조각이 되어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건 아닐까? “당신 무슨 일 있어? 혹시 나쁜 생각 하는 건

아니지?” “한참 말이 없던 남편은 입을 떼었다. “나쁜 생각은 안 하는데, 그러고 보니 나쁜 행동은 좀 한 것 같네.” “무슨 행동?” 묻는 와중에도 K는 “제발 주식



은 아니길.”하고 속으로 빌고 있었다. “여보, 혹시 내가 당신보다 먼저 죽는 날이 오면, 내 부탁 꼭 좀 들어줘.”, “무슨 부탁인데?” “내 컴퓨터에 들어가면 ‘업무’라고 쓰인 폴더가 있거든. 거기 열어보면 아동이 수십 편 있을 거야. 그걸 꼭 좀 지워줘라.”

그 순간 K의 머릿속에 떠오른 말은, 두 아들이 요즘 자주 쓰는 ‘빙미?’ 딱 한 마디였다.

“아동?”, “응, 사실 내가 아동 마니아야. 혹시라도 내가 죽은 뒤에 아들놈들이 내 아동폴더를 발견하면 아버지 어떻게 생각하겠어? 당신은 이

자나깨나 아동에 빠진 남편曰 “당신은 이해하겠지만 애들 볼까 무서우니 나 죽거든 ‘아동’부터 지워줘”

해하겠지만 자식들은 틀리잖아. 그러니까 내가 죽으면 장례 치르자마자 아동폴더부터 지워줘.” 듣고 있으니 기가 막혀왔다. 이런 소리나 하려고 사람 애간장을 태워나 싶을거다. “당신은 유언할 게 그런 것밖에 없어?”, “다른 건 별로 걱정할 게 없잖아. 당신이 알아서 잘 할

‘남편의 유언’

테고, 걱정되는 거라곤 그저 하나밖에 없네.” K는 화를 내야 할지 웃어야 할지 가늠이 되지 않았다. 아동 마니아였다는 말은 사실 기본 좋은 고백이 아니지만, 남편이 기껏 아동폴더나 걱정하고 있다는 사실은 왠지 안심이 되었다. 주식폭락으로 자살하는 사람들이 기사를 오르내리는 요즘이라 더 그랬다. 그렇다고 내놓고 좋은 척하기도 싫은 K는, 남편에게 던지듯 말했다.

“심장 약하고 혈압 있는 사람에겐 자극적인 게 안 좋아. 당신도 잘 알잖아.”

이렇게든 도망갈 구멍을 모두 막은 셈이라 생각하며 ‘이 남자가 뭐라고 대답할까?’하고 생각 중인 K. 그런데 남편의 대답이 어이없다. “내 나이 겨우 마흔이야. 그 정도에 충격을 받아 나이는 아니잖아?”, “뭐야. 앞뒤 말이 안 맞잖아. 아가는 걱정된다며?”

“괜히 해 본 소냐? 나 아직 견제해, 걱정하지 마.” 남편은 그만 자짜짜 돌아누웠다. 눈 감길 때 가장 걱정되는 것이 아동폴더라더니 지금 또 저렇게 말을 바꿔가면서까지 지켜야 하는 게 아동폴더인 건가? 그렇게 생각하자 K의 기분은 아까보다 아주 조금 더 나빠져 버렸다. <연애칼럼니스트>

리빙 센스

피부에 좋은 과일 ③

◆토마토 비타민 A·C가 풍부한 토마토는 피지 조절 효과가 있어 여드름 피부와 지성 피부에 좋다. 특히 토마토의 과일산은 각질과 콧등의 블랙헤드를 제거하는데 도움이 된다. 방울 토마토를 크기에 따라 10~15개를 먹거나 강판에 간 다음 흘러내리지 않을 정도로 꿀을 섞어서 얼굴에 골고루 펴 바르고 15~20분 후 미온수로 씻는다.

◆살구기 맑고 투명한 피부를 위해서는 목은 각질을 없애는 것이 중요하다. 화장품 가게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살구씨가루 1큰술에 플레인 요구르트 1/2큰술을 넣어 너무 걸쭉하지 않게 농도를 조절해가며 잘 섞는다. 1주일에 한번 정도 스크럽을 얼굴에 펴 바르고 손가락에 힘을 빼고 부드럽게 마사지만 다음 씻어낸다.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10월 31일(음 10월 31日 甲戌)

Table with 12 rows of daily horoscopes for the 10th lunar month, 31st day (Jingxu). Each row includes a zodiac sign (子, 丑, 寅, 卯, 辰, 巳, 午, 未, 申, 酉, 戌, 亥) and a brief prediction.

검색절정 키워드

‘피겨요정 김연아’ 전 세계가 주목

‘피겨 요정’ 김연아가 한 차원 다른 무대로 세계인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김연아는 지난 26일(한국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2008-2009시즌 국제빙상경기연맹(ISU) 피겨스케이팅 시니어 그랑프리 1차 대회 ‘스케이팅 아메리카’ 여자싱글 프리스케이팅에서 2위보다 무려 20.92점 높은 점수로 우승을 차지하며 검색어 순위에도 이름을 올렸다.

대회 첫날 쇼트 프로그램에서 69.50로 1위를 차지했던 김연아는 합산 점수 193.45로 2위 나가로 유카리(일본·172.53점)를 가볍게 제치고 우승의 영예를 안았다. 김연아는 공중연속 3회전을 가뿐히 성공시키는 등 기술적인 면에서나 예술적인 감성면에서 모두 찬사를 받으며 네티즌을 열광시켰다.

한국의 문화 황석영도 검색어 순위에도 등장했다. ‘소나기’, ‘장길산’의 작가 황석영이 무릎

다스에 출연, 엉뚱하면서도 파란만장했던 삶을 진솔하게 털어놓아 네티즌의 관심을 끌었다.

지난 2일 스스로 목숨을 끊은 최진실의 재산 문제를 놓고 논란이 뜨겁다. 고(故) 최진실의 전 남편 조성민이 두 아이에 대한 친권과 함께 재산권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면서 네티즌의 반발을 샀다.

지난 2004년 이혼 당시 친권을 최진실에게 남긴데다 유산 문제가 걸린 만큼 조성민의 친권 주장에 대해 네티즌은 골치 많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이에 대해 조성민은 “지금 저의 가장 큰 목적은 아이들의 복지와 행복이며 고인이 남긴 재산 중 단 한 푼도 제가 관리하거나 사용할 의사가 없다”며 “아이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유산이 객관적인 제 3자가 관리해 온전히 보전될 수 있으면 한다”고 심경을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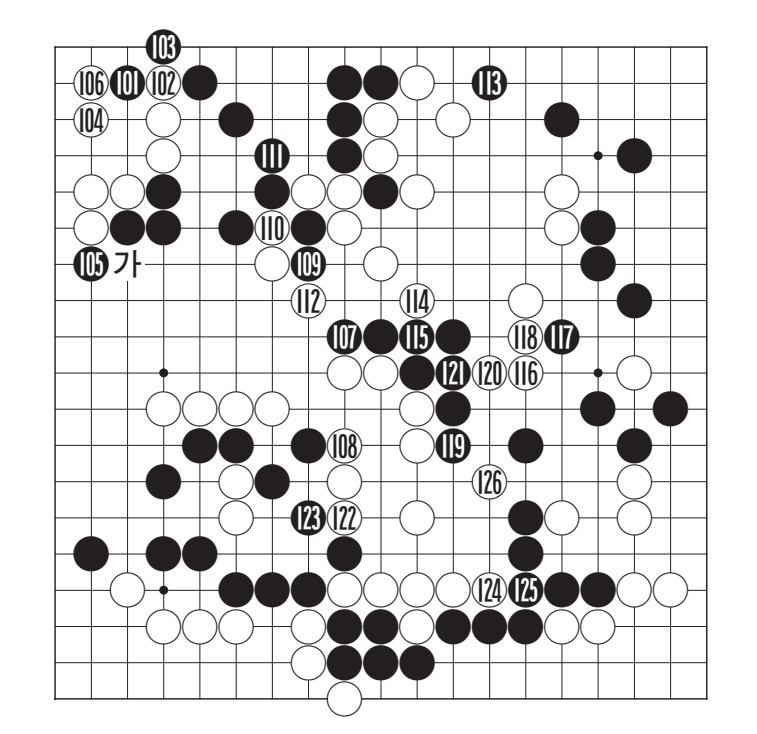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김연아(가운데)가 지난 27일 미국에서 벌어진 ‘2008 스케이팅 아메리카’ 대회 여자 프리 스케이팅에서 우승을 차지한 뒤 시상대 위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흑의 폐부를 찌른 비수

중동부 최강부 결승전 7보(101~126) 白 김민후 3단 黑 김태훈 3단 (조봉초 6) (신창초 6)



이제부터가 어려운 중반전을 맞이하고 있다. 흑 101로 뛰고 105로 강력하게 틀어막아 선수를 잡은 김태훈군은 107로 중앙을 밀어 갔는데 이 수로는 먼저 108에 두어 백 모양을 무너뜨려야 했다. 실전은 108로 막은 수가 좋아 차이가 있다. 다음 흑 109로 한집을 키워 죽인 수도 대박수. 김태훈군은 ‘가’에 끊기는 수를 의식한 듯 하나 현실적으로 큰 손해였다. 그러나 하면 흑 113도 큰 곳이는 하나 이 수로도 ‘참고도’의 흑 1, 3으로 중앙을 틀어막는 것이 크고도 두터웠다. 결과적으로 중앙을 두지않은 바람에 김민후군의 날카로운 공격을 받아 흑 대마가 휘청거리게 된다. 백 116이 평범하면서도 날카로운 수였다. 이 수로 인해 어떻게 두더라도 흑 대마가 연결하는 수단이 없음을 확인하기 바란다. 백 126이 흑의 폐부를 찌르는 비수가 되었다. <오규철 9단·본보 비독 해설위원>

대한주택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 EL DORADO 엘도라도리조트

굿모닝 잉글리쉬 <1179> 오하오우 니혼고 <1179> 니하오 쥅구워 <256> 한자 이야기 <896>

English section: I just got back from my vacation. 휴가를 마치고 이제 막 돌아왔어. A: I just got back from my vacation. B: I know. How was the rental car? A: You've not going to believe this. The car stalled out on me four times. I was pretty mad. B: I would be too. Don't ever rent from that place again. A: 휴가를 마치고 이제 막 돌아왔어. B: 그래. 빌려간 차는 어땠어? A: 자네 이 말을 믿으려고 하지 않겠지. 그 차는 갑자기 네 번이나 엔진이 꺼졌거든. 정말 짜증나더라고. B: 나라도 그랬잖아. 다시는 그런 곳에서 차를 빌리지 말아. * stall out : (엔진이) 멈추다 * rent : 빌리다 * get back : 돌아오다 * 그 식당은 어땠니? = How was the restaurant?

Japanese section: どうしよう? 어떡하지? A: タクシーにパスポート おいて きた. どうしよう? B: タクシーの ナンバー おぼえて? A: おぼえて ない. a: 택시에서 여권을 두고 내렸어. 어떡하지? b: 택시 번호 기억해? a: 기억 안 나. パスポート(passport) : 여권 ナンバー(number) : 번호 おぼえる : 기억하다. 익히다

Chinese section: 这是我的生日礼物. 이것은 나의 생일선물입니다. A: 这是什么? zhè shì shēnmǒ 这是什么 B: 这是我的生日礼物。 zhè shì wǒ de shēngrì lǐwù 这是我的生日礼物 A: 谁送的? shéi sòng de 谁送的 B: 爸爸, 妈妈送的。 bāba māma sòng de 爸爸 妈妈 送的 A: 이것은 무엇입니까? B: 이것은 나의 생일선물입니다. A: 누가 주셨습니까? B: 아예, 엄마가 주신 겁니다.

Hangul section: 尊孺折衝(준주절충) 술통 준, 도마 조, 꺾을 절, 찌를 충. 준주절충(尊孺折衝)은 술통과 고기를 넣어놓은 도마 사이에서 담소(談笑)하면서 적의 예봉(銳鋒)을 꺾는다는 뜻으로, 술자리에서 외교를 비롯한 여러 교섭에 유리하게 담판하거나 흥정함을 비유한다. 춘추시대, 제나라 경공(景公)은 형인 장공(莊公)을 신하 최자가 죽임으로써 왕위에 올랐다. 따라서 경공은 최자를 좌상(左相)에 임명하고, 그를 반대하는 자는 죽이기로 맹세까지 하였다. 이에 모든 신하들이 맹세하였지만, 단 한사람 안영은 맹세하지 않았다. 드디어 최자가 살해되자 경공은 안영을 삼국 벼슬에 임명했다. 안영은 온후하고 박식한 사람으로 한 발의 호구(狐裘, 여우 거드랑이 흰 털로 털옷)로 30년이나 입을 정도로 검소한 관리였다. 경공이 큰 식을(食邑)을 하사하려 하자, 그는 ‘육심이 충족되면 말할 날이 가까워옵니다.’고 사양하였다. 안영은 외교 수완이 뛰어났다. 그는 12개의 대국, 또는 100여개의 소국을 상대로 빈틈없이 노력하여 제나라를 반석 위에 올려놓았다. 이런 외교에 관한 언행을 수록한 것이 ‘안자 춘추(晏子春秋)’이다. 공자는 이런 언행을 평가하기를, ‘술통과 도마 사이를 나가서 잃고 1000리 밖에서 절충한다’고 하였다. (晏子春秋, 內簡)

Advertisement for DermaPlast skin care products. 운수는 나빠도 상처는 흉터없이!! DermaPlast. 더마플라스트 밴드. 제품구입문의: (주)호원약품 062-383-5883